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10월

발행일 : 2025년 9월 30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                                                                       |    |
|---|-----------------------------------------------------------------------|----|
|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                                        | 2  |
| ✓ |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해외시장뉴스 .....                                             | 27 |
| ✓ | <팀코리아협업체 동정> 산업부,베트남과국장급회의...현지기업 애로해소논의 .....                        | 28 |
| ✓ | <기업탐방> (주)학산 .....                                                    | 29 |
| ✓ | <법률> 베트남의 전자정부로의 전환.....전현우 변호사 .....                                 | 33 |
| ✓ |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9탄 .....                                          | 35 |
| ✓ | <통관> 수출입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수수료 부과·납부에 관한 규정 .....                          | 38 |
|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랑선성> .....                                            | 41 |
| ✓ | <이달의 보고서> 소비재수출동향과유망시장:2부 화장품,가전제품 편...FTA 해외활용지원센터상담FAQ: FTA공금증을한권에! | 47 |
| ✓ | <이달의 전시회> 2025 베트남 박장 정밀 기계 및 제조 전시회 .....                            | 48 |
|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                                            | 49 |
|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                                                     | 54 |



##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시장동향

-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시장, 풍부한 원두 생산 기반으로 성장세 지속
- 로컬 브랜드 강세 속, 차별화된 제품 및 마케팅 전략 필요

### 시장동향

전 세계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장기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259억 달러에서 2024년 1445억 달러로 성장했다. 2030년에는 166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글로벌 통계는 인스턴트 커피가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농무부(USDA)는 2024년 기준 베트남이 180만 톤 이상의 커피를 생산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생산국으로 자리한다고 밝혔다. 풍부한 원두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글로벌 수요 확대 흐름에 맞춰 인스턴트 커피 개발과 수출을 활발히 확대해 나간다.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Statista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8억2370만 달러에서 2025년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약 13억35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풍부한 커피 원두 생산량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국내 소비 확대 및 글로벌 인스턴트 커피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 수입동향과 수입규모

베트남의 인스턴트 커피를 포함한 HS Code 2101.11 수입 규모는 2022년 5110만 달러에서 2023년 4630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2024년에는 806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상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해외 수입이 아닌 내국수출입제도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내국수출입제도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수출용 제품 제조 과정에서 다시 사용될 때 내국 수출로 신고한 뒤 가공 단계에서 내국 수입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원재료는 보세(면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는 국내산 원재료가 재가공되는 과정임에도 통계상으로는 수입으로 집계된다. 실질적인 주요 수입 상대국을 보면 브라질이 2024년 22708만 달러(점유율 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주요 원산지로 성장했다. 인도(9.9%)와 중국(9.4%)역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과거 비중이 높았던 말레이시아(8.3%)와 인도네시아(7.6%)는 최근 몇 년간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베트남의 수입 구조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수출은 2024년 약 81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비중은 큰 변동이 없어, 한국산 제품은 현재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제한적인 점유율을 보인다.

### 유통구조

베트남의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여전히 오프라인 소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유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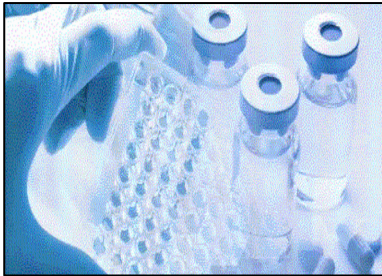
약 92.2%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동네 소규모 상점이 5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슈퍼마켓이 16.4%로 뒤를 잇는다. 이러한 구조는 베트남 시장이 여전히 전통적인 구매 패턴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화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라 구매 경로는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다. B2C 채널에서는 전통 상점이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가운데 슈퍼마켓, 편의점 등 현대적 유통망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hopee와 Lazada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커머스 소비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인스턴트 커피의 또 다른 축은 B2B 채널이다. 호텔, 기업 사무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정기적이고 대량의 수요가 발생한다. 유통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제조사 직접 공급 채널로 네슬레 프로페셔널이나 쥘렌 레전드와 같은 대형 커피 브랜드가 B2B 전담팀을 통해 계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납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전문 식자재 유통사를 통한 공급으로 Annam Professional, Food Source International 과 같은 업체가 다양한 브랜드의 인스턴트 커피를 호텔, 사무실 등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 관세율 및 규제

HS Code 2101.11 에 해당하는 인스턴트 커피의 일반 수입세율은 45%이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AKFTA)나 한-베트남 FTA(VKFTA)를 활용할 경우 해당 제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율 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세율 대비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스턴트 커피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수출 전에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수출된 커피는 베트남 국내 규정에 따라 제품 포장 시 원산지, 성분, 제조일자 등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 시사점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다. 풍부한 원두 공급에 기반하여 인스턴트 커피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원두 가공 및 프리미엄 제품군 개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구조는 현지 생산 및 가공 비중이 높아 수입 비중은 제한적이며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 수입 비중도 1% 내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이 주로 로컬 브랜드를 선호하고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시장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 기업들은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된 원두 블렌딩, 프리미엄 제품, 프리미엄 3-in-1 제품 등으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K-컬처와의 연계한 마케팅 전략,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복합 유통망 활용, B2C와 B2B를 결합한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FTA를 활용한 관세 인하 혜택을 활용하는 동시에 식품안전 인증, 라벨링 규정 등 현지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은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점진적인 점유율 확대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바이오헬스 산업, 동남아 신흥 성장 거점으로 부상

- 베트남 바이오헬스 시장, 의료 수요 확대 속에서 고성장 예상
- 정부의 육성 정책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진출 확대

### 시장동향

베트남은 고령화와 맞춤형 치료 수요 확대에 따라 동남아 바이오헬스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1명, 간호사 1.3명, 약사 0.4명으로 OECD 평균이나 한국보다 현저히 낮으며, 병원 수(1,178개)와 병상 수(3.5개/1,000명) 역시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의료비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의 민간의료 지출 비중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2024년 기준 전체 의료비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8.2%로,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를 민간이 부담한다. 민간 보건지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82억 달러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정부 지출도 소폭 늘었지만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처럼 민간 의존도가 높고 공공의료의 보장성이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병원 현대화, 의료기기 도입, 제약산업 확충,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분야의 역할이 확대된다. 특히, 민간과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 베트남 정부도 제약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1165/QĐ-TTg」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생산 역량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2045년까지는 동남아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 정비, 디지털 전환, R&D 투자 유도, 국제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며, 민간 및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흐름과 발맞춰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 베트남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

#### 1) 의약품 시장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의료 서비스 구조의 전문화, 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 강화,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제약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5년 시장 규모는 약 24억2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2030년에는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해 약 31억1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치료 영역별로는 항암제, 당뇨병 치료제, 면역억제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항암제는 2025년 4억 1천 376만 달러에서 2030년 5억 8천 59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역억제제는 연평균 1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백신 시장은 코로나19 특수 이후 수요가 둔화되며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소비는 병원 처방 중심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한다. 국내 생산은 주로 일반의약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부가가치 의약품과 바이오헬스 의약품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국산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은 가치 기준 약 35%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에서도 외국계 기업과 격차가 존재한다.



## 2) 의료기기 시장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민간 병원과 전문 클리닉 중심으로 고기능 장비 수요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도 외국인 투자 유치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확산을 통해 기기 도입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7억 4천만 달러에서 2030년 24억 4천 9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7.1%로 주요 산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심장학 장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심장학 장비는 2025년 약 2억 8천 640만 달러에서 2030년 4억 1천 567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형외과 기기, 진단 영상 장치, 당뇨병 관리 기기가 주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약 90%가 수입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 장비는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 조달보다는 민간 병원 중심의 직접 구매가 일반적이며, 국내 생산은 소모품이나 기초 의료용품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중고가 의료기기 분야는 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의 진입은 제한적이다.

## 3)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베트남 의료 시스템 전반에서는 디지털 전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진료, 전자건강기록, 병원정보시스템, 의료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었으며, 보건부는 2019년 스마트 보건정보 기술 전략과 2020년 디지털 전환 계획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 로드맵을 시행 중이다. 주요 병원들은 진료 정보 전자화, 모바일 예약, AI 진단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UNDP와 협력한 'Doctor for Everyone'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1,400여 개 공공 의료기관과 150여 개 보건소에서 디지털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 기업 진출 현황

베트남 제약시장은 1인당 의약품 소비가 약 70달러로 200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 한계로 외국 기업에 의존도가 높아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크다. 동화약품은 중선파마 지분 인수로 OTC 유통을 확대하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빈그룹 병원과 협력해 암 약물 반응 평가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제뉴원사이언스는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제너릭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구바이오제약과 삼진제약도 현지 제약사와 협력해 생산과 유통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 역시 전체 수요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한국은 주요 공급국 중 하나다. 한국 기업들은 진단기기, 영상 의료기기, 소모품뿐 아니라 스마트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기기까지 시장을 넓히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애프터서비스가 성공적 진출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시사점

베트남 바이오의료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서비스 고도화 수요 확대에 힘입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의료 인프라와 기술력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인 동시에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첨단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등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암제, 면역억제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 고성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요구된다. 시장 진입 과정에서는 현지 수요와 환경에 맞는 솔루션 제안이 핵심이다. 농촌 및 중소도시의 의료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 비용 효율적인 진단 장비, 병원 맞춤형 디지털 관리 시스템 등은 베트남의 의료 현실과 직접 연결된 수요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 병원 및 바이오의료 연구기관과 공동 R&D, 임상 협력,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베트남의 바이오의료 제도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장기적인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수출을 위한 인허가 규제 장벽이 높은 만큼 베트남 보건부 등 정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유통망과 병원 네트워크를 가진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과 의료 인력 교육, CSR 활동을 통한 신뢰 기반 확보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이 결합될 때, 한국 기업은 베트남을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의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도약, 현지 생산 확대에 주목

- 현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저렴한 제품 생산 및 친환경·천연 원료 선호에 따른 로컬 생산 수요 증가
- 베트남 로컬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현지 맞춤형 제품 런칭 활발

### 시장동향

베트남은 코코넛, 커피, 아보카도, 알로에 베라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에서 활용되는 주요 기능성 원료(보습제, 용매, 안정제 등)의 생산 기반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상당 부분을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글리세롤(Glycerol)과 디-글루시톨(D-glucitol)은 대표적인 보습제이자 용매 원료로 꼽히며,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피부 보습력 향상, 제형 안정화, 원료 간 혼합 촉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와 로컬 브랜드 성장으로 원료 수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뷰티·퍼스널케어 시장은 중산층 확대, K-뷰티 확산,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연평균 7~10% 성장, 2024년 약 2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유통 물량의 90% 이상을 수입 제품이 차지하지만, CoCoon 등 일부 로컬 브랜드는 연평균 2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점유율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천연·유기농 제품 선호 증가와 온라인 유통 채널 확산은 로컬 브랜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현지 맞춤형 포뮬러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베트남의 화장품 제조공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면서 규모와 수준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OEM·ODM 형태로 한국, 일본, 유럽 브랜드의 하청 생산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코스메틱 제국, Thorakao, Saigon Cosmetic, Biona(Viet Huong) 등 로컬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개발과 생산라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공장은 호치민과 하노이 인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CGMP-ASEAN, ISO, Halal 인증 등을 획득해 해외 수출 기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료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 역량과 첨단 설비 측면에서는 한국·일본 대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성장과 정부의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제조 공장들은 점차 현대화와 글로벌 표준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 베트남 화장품용 화학원료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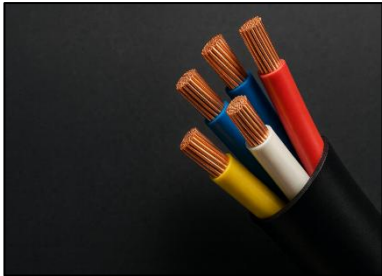
베트남의 디-글루시톨 수입은 최근 5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약 5억 달러 규모였던 수입액은 2024년 14억6000만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약 30%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화장품·개인용품 산업 뿐 아니라 제약, 식품,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디-글루시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23년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 및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 감소세가 나타났으나, 2024년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며 구조적인 수요 확대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의 한국산 디-글루시톨 수입은 규모 면에서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2020년 약 6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수입액은 2024년 2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39.5%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성장률(30.4%)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산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2022년 동안 베트남의 글리세롤 수입액은 급격히 증가해 2022년 약 2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뒤 2024년에 소폭 반등해 12억3000만 달러 수준을 보였다. 주요 공급국 중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16%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공급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산 글리세롤 수입은 2020년 약 4만3000달러에서 2024년 약 8만9000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연평균 19%라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시장 규모 대비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지속적 성장세와 신뢰성 있는 공급국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 내 고품질 원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산은 품질 안정성, 규격 준수,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현지 화장품·의약품 산업의 고급화 흐름과 맞물려 한국산 글리세롤의 활용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베트남 화학 수입 및 유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현지 바이어 KEMIC JOINT STOCK COMPANY의 Nguyen Quoc Khanh는 KOTRA 다낭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 베트남 내 다수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자국 내 생산에 필요한 화학 원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글리세롤과 디-글루시톨과 같은 일부 원료는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다용도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당사는 한국의 화학 원료 생산업체와의 협력을 희망하며, 앞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사점

베트남 화장품 화학 원료 시장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글리세롤, 디-글루시톨 등 기초 원료부터 기능성 원료까지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습제·안정제·용매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원료와 친환경·천연 성분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고품질 원료 공급 능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베트남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시장 진출 시 환경 기준, 안전성 평가, 등록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화학 수입·유통업체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친환경·기능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베트남 전선·케이블 시장동향

- 베트남 전력개발계획(PDP8)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요 증가
- 현지 유통망 확보와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전략 필요

### 시장동향

베트남의 전선 및 케이블 시장은 2019~2024년 연평균 10%이상 성장했다. 특히, 전력 안정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송·배전망 확충과 통신·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은 전선 및 케이블 수요 확대를 촉진했다. 베트남의 전력개발계획 VIII(PDP8)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단지를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와 수요지를 연결하는 송전·배전 인프라는 필수적이며, 특히, 배전망에서 산업단지, 건물, 공장으로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절연 전선·케이블 사용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더해, 지붕형 태양광과 소규모 분산형 발전원이 확산되면서 전력망 연계를 위한 저압 케이블 수요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따른 배전망 교체·보강 수요가 발생하면서 저압 케이블 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 수입동향

HS코드 8544.42 품목의 베트남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총수입 규모는 10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이 수입 비중 76.8%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홍콩과 한국이 각각 7.6%와 4.5%로 2, 3위를 차지했다. 10위권 내에 속하는 국가 중 일본(1.4%), EU(1.1%), 태국(1.0%) 등이 뒤를 이었으며, 독일과 대만의 점유율은 각각 0.6%와 0.5%에 불과했다.

### 경쟁동향 및 유통구조

베트남 전선·케이블 시장은 베트남 국내 주요 기업들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 국내 기업 중에서는 GELEX 그룹이 대표적이며, CADIVI, DAPHACO 등 전선·케이블 및 전기 장비 관련 자회사를 통해 시장 내 상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TRANPHU, CADI-SUN 등 다수의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활발히 경쟁하고 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으로는 LS VINA Cable & System, Taihan Cable Vina 등이 베트남 현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베트남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Thipha Cable은 베트남 기업이지만 태국계 자본(Stark Corporation)의 인수로 외국계 영향력이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의 전선·케이블 유통은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생산한 제품이 총판 및 대리점망을 통해 전국에 공급되는 구조를 가진다. 대리점들은 다시 지역 전기상가·건축자재상과 연결되어 주거·상업·산업 현장으로 흘러간다. 대형 프로젝트나 전력 인프라 사업은 별도로 제조사와 시공사, 발주처간 직납 형태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 채널과 프로젝트 기반 직접 납품이 늘어나며 소매 유통을 보완하고 있다.

## 관세율 및 수입통관절차

HS 코드 8544.42에 해당하는 전선·케이블은 베트남에서 일반 수입관세율이 최대 25.5%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한-베트남 FTA(VKFTA)를 비롯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경우 관세율은 대부분 0~5%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특히, 플라스틱 절연 케이블의 경우 일반세율이 25.5%이지만, VKFTA 적용 시 0%로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부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 인증정보

베트남 정부 결정문 Decision 15/2023QD-TTg에 따라 HS 코드 8544.42는 전압이 1000V 이하인 절연 전선·케이블로서 커넥터가 장착된 제품을 의미한다. 통신용의 경우 전압 구간(80V 이하 / 80V 초과~1000V 이하)에 따라 해저 통신 케이블과 기타 절연 케이블로 세분된다. 이 외에도 절연재(고무·플라스틱·종이)나 기타 유형에 따라 추가로 정의된다. 한편, HDMI 케이블(HS 코드 8544.42.99)은 신제품일 경우 시행규칙 Circular 05/2014/TT-BTTTT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고품의 경우에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Circular 23/2015/TT-BKHCN에 따라 관리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제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 기준 충족, 라벨 부착, 적합성 관련 의무 절차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불허되어 수입이 제한된다.

##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은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국가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배전망 확충과 전력 인프라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건설, 산업단지 전력 공급망 보강 등으로 전선·케이블과 같은 핵심 전력 기자재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전력 개발계획(PDP8)과 인프라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현지 유통 구조에 적합한 파트너십 구축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베트남 동물사료 시장, 친환경·유기농이 새 키워드로

- 무항생제·식물성 원료 확산
- FDI 기업이 시장 주도

### 시장동향

베트남 동물사료 시장에서는 최근 친환경과 유기 사료가 주요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으며, 가격보다 ‘안전성과 청결성’이 축산물 선택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 사료와 유기 사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엣성 한 농가에서는 가금류 사료에 녹차찌꺼기를 배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유기 사료 시장이 아직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만, 성장 속도는 빠르다고 평가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깨끗하게 키운 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시장 확산을 이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도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 제품을 강조하면서 소비자 인식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료 배합에서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대두박·옥수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완두콩 단백질, 카놀라박, 천연 유래 첨가제 등 새로운 원료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는 원가 변동성을 줄이고, 동시에 ‘항생제 없는 사육’이라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 일부 기업은 사료에 프로바이오틱스, 효소, 허브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를 추가해 면역력 강화, 성장 촉진, 소화 개선 등 구체적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베트남 현지 기업들도 실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녹차찌꺼기 활용 사례 외에도, 카사바 부산물이나 쌀겨 같은 농업부산물을 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원가 절감 뿐만 아니라 환경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순환경제형 사육’이라는 글로벌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 베트남, 세계 8위 사료 생산국… 수입 의존 구조 지속

베트남은 2023년 세계 동물사료 생산국 순위에서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연간 산업용 사료 생산량은 약 2000만 톤으로, 이 가운데 돼지 사료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사료 수출입에서는 수입 규모가 꾸준히 수출을 상회했다. 수입액은 2019년 37억 달러에서 2022년 56억 달러까지 늘어난 뒤, 2024년에는 49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2019년 6억8000만 달러에서 2023년 12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10억4000만 달러로 줄었다. 현재 베트남 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약 65%와 사료 첨가제의 90% 이상은 해외에서 공급된다. 주요 공급국은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다. 수입 원료 가운데 대두박, 배합사료, 주정박(DDGS), 육골분, 가금 부산물이 주요 품목으로 꼽힌다. 수입 품목 수는 2023년 34종, 2024년 37종, 2025년 상반기 38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동물사료협회 한 관계자는 하노이무역관에 사료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생산 비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 시장의 가격 변동이 공급망 안정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참고로, 관련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10여년 전 일부 논 경작지를 사료용 곡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쌀 수출과 과일 재배의 수익성이 높아 옥수수 재배지가 줄어들어 원료 자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해외 글로벌 기업, 베트남 사료시장 주도

베트남 사료산업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트남에는 총 설계 생산능력 4320만 톤 규모의 산업용 배합사료 제조공장 269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외국 인직접투자(FDI) 기업 소유 공장은 90곳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며, 설계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51.3%에 달한다. 상위 10대 기업 중 베트남 기업은 4곳이지만, 이 중 2곳만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2곳은 원료 유통을 통해 시장에 진입해 있다. 마산(Masan), 호아팻(Hoa Phat), 쩡응하이(Truong Hai), 흥봉(Hung Vuong) 등 국내 대기업들도 사료 생산 및 공급망 통합에 적극 투자하며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 베트남 정부 사료산업 발전정책 추진 중... 국내외 기업 진입 기회 확대 전망

2019년 이후 매년 재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료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 리포트가 2024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1%는 2025년 산업 성장세가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체적으로 성장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베트남 정부가 2023년부터 '2030 베트남 사료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사료 생산량 확대와 원료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원료·사료 첨가제·생산 설비·가공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시장 진입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물티슈 시장동향

- 인구 구조 변화와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이끄는 성장
- 대용량, 개인용, 유아용 물티슈 중심으로 성장

### 시장동향

베트남은 약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나이가 32세 내외로 비교적 젊은 국가다. 2024년 7%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월드뱅크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약 6.5%~7%로 예상했다. 경제 성장에 힘입어 도시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향상됐다.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 또한 향상되면서 소비시장이 성장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위생용품 소비시장 확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은 단순한 가성비보다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평균 초혼 연령이 약 27세인 MZ세대가 부모 세대로 진입하면서, 이들의 친환경 소비 성향이 위생용품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특히, 무알코올 · 무향 · 저자극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다. 아기용 물티슈 판매도 증가세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수준 향상과 위생 관념 강화에 기인한다. 기업들 역시 이에 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생분해성 원단과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는 등 대응 전략을 강화한다. 2024년 기준 베트남 물티슈 시장은 약 1억3000만 달러 규모이며, 2019~2024년 연평균 9% 성장세를 기록했다. 개인용 물티슈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카테고리 대용량 제품이 매출을 이끌었고, 아기용, 일반용 물티슈는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며 여전히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득 수준 향상과 중산층 확대, 그리고,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며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동향 및 경쟁동향

HS코드 4818.20 품목의 베트남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총수입 규모는 3057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7%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이 수입 비중 83.8%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각각 10.6%와 2.9%로 2,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0.7%로 5위권이었다. 베트남 물티슈 시장은 베트남 현지 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함께 참여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 일본 유니참(Unicharm)이 인수한 Diana 가 Bobby 와 Fressi Care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 선두를 차지한다. 베트남 현지 기업인 Dong Hiep Trade & Investment 도 Mamamy, Fressi Care 등 자사 브랜드를 통해 강력한 입지를 유지한다. 대만계 기업인 Yahan Enterprise 는 Let-Green, Nuna 등 브랜드를 운영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Viet Australia International Trading and Service JSC 는 호주와 합작 형태로 Teen Care 를 생산 · 유통하며 존재감을 높인다. 글로벌 기업인 Kimberly-Clark Vietnam 은 Huggies 브랜드를 현지 생산하며 베트남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 외에도 일부 기업은 OEM · ODM 방식을 활용해 글로벌 및 현지 유통망에 공급한다. 외국계 자본이 베트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면서, 베트남 현지 브랜드와 외국계 브랜드 간 경쟁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

## 유통구조

베트남 물티슈 시장의 유통은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출발해 대리점을 거쳐 전국으로 공급되는 구조이다. 이후, 대리점은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아기 전문점 등 지역 소매점들과 연결된다. 지역 소매점은 베트남의 여전히 가장 큰 판매 채널이며, 유명 브랜드 제품을 먼 취급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Shopee, Lazada, Tiktok shop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해 온라인 직거래 대용량 저가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 관세율 및 인증

베트남에서 HS코드 4818.20에 해당하는 물티슈(손수건, 클렌징 티슈 등)의 일반 수입관세율은 27%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베트남 FTA(VKFTA)와 한-아세안 FTA(AKFTA)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경우 관세율은 0%까지 낮아진다. 또한, RCEP을 적용할 때도 18%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세율에 비해 부담이 완화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부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베트남 국가 기술 규정 QCVN 09:2015/BCT 에 따르면 베트남 시장에서 수입돼 소비되는 종이 타올, 화장지, 티슈 제품은 제품의 품질(물리, 화학, 미생물학적) 기준을 충족하고 라벨링 및 CR 마크를 부착해 적합성 관련 절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제한된다.

## 시사점

베트남 물티슈 시장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위생, 건강 인식 제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배경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MZ세대 부모층의 증가는 무알코올, 저자극, 친환경 제품 수요를 빠르게 끌어 올려 시장 차별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 기업은 품질과 안전성을 강조한 영·유아용 제품과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출 시 품질 기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현지 소비자 성향에 맞춘 포장 디자인과 마케팅, 현대식 소매 및 이커머스 채널과의 협업을 강화해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베트남 물류 및 콜드체인 산업

- 성장 잠재력과 구조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베트남 물류, 콜드체인 시장
- 한국 기업, 리스크 대응 및 차별화 전략으로 아세안 진출 거점 확보 기대

### 베트남 물류산업 현황

베트남 물류산업은 제조업 성장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힘입어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EMR에 따르면, 2023년 시장 규모는 약 452억 달러로 GDP의 4.92%를 차지했으며, 2024년에는 494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2025년에는 5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몇 년간 연평균 14~16%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제조업 수출 증가, 온라인 쇼핑 확대, 글로벌 물류 기업의 투자 유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시장 구조를 보면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22%로 줄었고 2025년에는 20%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다양한 중소 및 신규 물류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만4천 개의 물류 서비스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자본금 100억 VND(약 38만 달러)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은 약 20%에 그친다. 반면 글로벌 물류기업과 일부 대형 로컬 기업이 약 8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기업별 점유율을 보면, 글로벌 기업 DHL(16%), Maersk(13%), Nippon Express(9%), Kuehne+Nagel(8%), DB Schenker(7%)가 상위권을 형성한다. 로컬 기업 중에서는 Viettel Post(7%), Gemadept(6%), Sotrans(5%)이 선전하고 있으며, 한국계 CJ Logistics(6%)와 J&T Express(4%) 등 아시아계 기업도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와 연계한 라스트 마일 배송, 창고 운영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장 내 존재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 베트남 주요 물류 인프라 현황

#### (1) 도로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약 3000km의 고속도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획된 시점에 완성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물류비용의 70% 이상이 도로 운송에서 발생할 만큼 의존도가 높다. 도로 운송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6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연평균 6% 내외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 내륙 수로 운송

베트남은 길게 뻗은 하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내륙 수로 운송이 발달해 있으며, 전체 화물 물동량의 약 18%를 차지한다. 그러나 운송 효율성 제약으로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2025년 약 6억 달러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 (3) 철도

철도 운송은 전체 물류의 약 2.2%에 불과해 비중이 낮으며, 2025년 시장 규모는 약 3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남북 고속철도 사업(총 700억 달러 규모)을 추진 중이며, 2030년대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향후 물류 다변화와 장거리 운송 효율 제고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 (4) 항공

현재 베트남에는 22개 공항(국제선 10개 포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1억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 주요 허브인 호치민 편선 공항과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은 이미 설계용량의 150%에 달해 포화 상태에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나이성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이 건설 중이며, 당초 2025년 개항 예정이었으나 개항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 (5) 해상 운송

베트남은 3200km 이상의 해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송은 전체 화물 물동량의 약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항만 인프라 확충과 연계 물류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단기간 내 물류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콜드체인 산업 현황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은 식품·농수산물·의약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이다. 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23년 2억1,120만 달러에서 2024년 2억2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2025년에는 약 2억9,500만 달러로 반등할 전망이다. FiinGroup은 2024년 이후 연평균 8~13%의 성장을 예상하며, 의약품 유통·온라인 신선식품 배송·냉장창고 확충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시장 점유율은 상위 10개 기업이 약 46%를 차지하며, 글로벌·현지·한국 기업이 함께 경쟁 중이다. 2023년 기준 1위는 미국 Lineage Logistics(6.5%), 이어 Transimex(6.2%), Hung Vuong·ABA Cooltrans(각 5.8%)가 뒤를 이었다. 한국 기업도 AJ Total(4.9%), Hanaro TNS(4.1%)가 상위권에 올랐다. 현재 베트남에는 냉장창고 업체 101개, 냉동 차량 운영업체 30여 개가 있으며, 용량의 87%가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메콩델타 인근 롱안성과 호치민 산업단지가 핵심 거점으로, 수산물·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장점을 보유한다. 2024년 시장은 냉장창고 13억8천만 달러, 냉동 운송 8억2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2025년에는 각각 20억1천만 달러, 9억4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 베트남 물류 산업의 정책 및 규제 환경

베트남 물류 산업의 정책 및 규제는 상법과 투자법을 근간으로 다수의 하위 법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이다. 특히, 시행령 163/2017/ND-CP은 물류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법령으로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약속한 양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개방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조건부 사업자'로 분류되며, 서비스 분야별로 상이한 지분 제한을 적용받는다. 창고업(CPC 742)과 화물 운송 주선업(CPC 748)은 100% 외국 자본 설립이 가능해 시장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내륙 운송의 핵심인 육상 운송 서비스(CPC 7123)는 합작 투자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분은 51%를 초과할 수 없다. 해상 운송 서비스분야 역시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한다. 이처럼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한편, 신선식품 및 의약품



수요 증가로 주목받는 콜드체인 분야는 아직 통합된 단일 법령이 없다. 대신 식품안전법과 약사법 등 기존 품목 관리 법령에 따라 규제가 이뤄진다. 따라서 콜드체인 시설 및 운송 수단은 각 품목에 요구되는 특정 온도, 위생 기준, 유통 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시사점

베트남 물류 및 콜드체인 산업은 제조업 성장, 전자상거래 확대, 식품·의약품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물류 인프라의 한계, 행정 및 제도적 장벽,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 부담 등 다양한 리스크도 공존한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만 보고 진출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현지 파트너십 및 제도 대응 역량을 확보하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틈새시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콜드체인 특성상 안정적인 온도 유지와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기술 투자와 관리 역량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소비자 특성과 전자상거래 트렌드 변화에 맞춘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 접근을 통해 베트남 물류시장 및 콜드체인 시장은 타 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자, 아세안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베트남 스포츠웨어 시장 동향

- 베트남 스포츠웨어 시장, 애슬레저 트렌드와 온라인 성장에 힘입어 연 5%대 성장세 전망
- FTA 활용과 디자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중국산 저가와 차별화된 진출 기회 모색 필요

### 시장동향

베트남 스포츠웨어 시장은 2019년 3억6540만 달러에서 2021년 2억8220만 달러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3억6580만 달러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2025년부터는 연평균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성장은 건강 관리와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헬스, 조깅, 요가 등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 요가 스튜디오 등 피트니스 인프라 확충도 스포츠웨어 시장 소비 확대를 뒷받침한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처럼 착용하는 애슬레저 (athleisure) 트렌드가 확산되며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베트남 내 스포츠웨어가 운동복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하면서도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수입동향과 수입규모

최근 3년간 베트남의 스포츠웨어(HS Code 6211.43) 수입액은 2022년 165만2000 달러에서 2024년 191만 3000 달러로 증가하며 연평균 약 8%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웨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데 기인하며 수입 제품의 다양성과 브랜드 경쟁력에 힘입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의 주요 스포츠웨어 수입국 가운데 중국은 2024년 기준 전체 수입의 37.5%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이는 가격 경쟁력과 대량 공급 체계, 지리적 인접성에 더해 스포츠웨어의 류 생산 공장이 중국에 다수 위치한다는 점이 높은 점유율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베트남 스포츠웨어 수출은 2022년 2000 달러에서 9만9000 달러로 48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 점유율 또한 0.1%에서 5.2%로 크게 확대됐다. 한편, 표에서 베트남이 2위 수입국으로 집계된 것은 실제 소비용 수입이 아니라 내국 수출입제도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를 보세 상태로 국내로 반입한 후 가공 및 재수출하는 구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수출입제도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 공정을 거치더라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내국수출입신고를 통해 면세(보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베트남 스포츠웨어 트렌드

#### (1) 주요 스포츠웨어 브랜드

베트남의 주요 스포츠웨어 시장에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고급 스포츠웨어 이미지와 함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전신 코디 제품군과 다양한 악세서리류도 판매하며 피클볼 용품 등 현지 스포츠 수요에 맞는 제품 트렌드를 반영한다. 리닝과 안타와 같은 중국계 브랜드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앞세워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한국 브랜드 휠라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강조한 스타일로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애슬레저 트렌드에 부합하는 브랜드로 인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 (2) 편안함과 멋을 동시에 추구하는 애슬레저의 일상화

애슬레저는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물며 편안함, 활용성,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패션 트렌드다. 베트남 로컬 패션 브랜드 레벤츠(Levents)에 따르면, 베트남 내 애슬레저는 글로벌 스타들과 인플루언서의 확산으로 2010년대 이후 급성장했다. 요가 팬츠, 레깅스, 스니커즈, 트랙수트, 조거 팬츠 등이 대표 아이템이며, 가볍고 통기성과 흡수성이 뛰어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과 내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직장에서의 복장 규정 완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추구, SNS를 통한 피트니스 콘텐츠 확산 등이 애슬레저 트렌드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도 젊은 층과 패션 리더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후드티와 레깅스의 조합 등 다양한 애슬레저 스타일의 믹스매치가 유행하고 있다.

## (3) 국민스포츠로 부상하는 피클볼

피클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를 결합한 라켓 스포츠로, 최근 베트남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분석 플랫폼 YouNet에 따르면, 2024년 8월 소셜미디어상 피클볼 관련 언급은 약 16만6300건으로, 같은 해 4월 대비 19배 증가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플랫폼 메트릭(Metric)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2024년 2분기 피클볼 관련 제품 매출은 약 227억 동(약 86만2000 달러)으로 전 분기 대비 150% 늘어났다.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은 라켓과 함께 바지, 셔츠, 스커트 등 피클볼 의류였으며, 이러한 흐름이 피클볼 웨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참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라켓과 공 같은 장비뿐만 아니라 피클볼 신발과 피클볼 웨어 등 관련 의류 소비 지출도 동반 확대되는 추세다.

## 유통구조

베트남 스포츠웨어 시장은 전체 판매의 약 82%가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스포츠웨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착용해보고 품질을 확인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에서도 의류 및 신발 전문점이 47.2%를 차지하며 주요 판매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유명 브랜드 및 로컬 라이징 브랜드는 주요 상권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확대하고 있다. 운동 종목별 체험 테마존, 시즌 한정 컬렉션 전시 같은 체험형 디스플레이를 도입하고, 현지 유명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런칭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비중은 아직 18%에 그치지만,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Shopee, Lazada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과 TikTok Shop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판매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향후 베트남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온라인 채널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관세율 및 인증

HS Code 6211.43 에 해당하는 스포츠웨어의 일반 수입세율은 30%이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AKFTA) 또는 한-베트남 FTA(VKFTA)를 활용할 경우, 해당 제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율 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세율 대비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스포츠웨어는 의류 및 섬유로 분류된다. 베트남 지식재산법에 따라 로고, 패턴, 디자인 등에 대해 디자인 등록, 상표권, 저작권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포츠웨어는 베트남 국내 규정에 따라 원산지, 성분, 사용 및 관리 지침 등을 포함한 정확한 라벨 표시가 필요하다.

## 시사점

베트남 스포츠웨어 시장은 건강 관리와 애슬레저 트렌드, 피클볼과 같은 신형 스포츠 열풍을 축으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성장을 기회로만 보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 중국산 제품이 가격과 공급망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의미 있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능성과 디자인 차별화, 현지화 전략 등을 통해 차별성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애슬레저 확산은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동시에 아우르는 복합 소비 패턴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브랜드가 강점을 가진 디자인, 스타일링, 브랜드 이미지 영역에서 기회를 열어준다. 또한 피클볼 열풍은 신형 스포츠가 시장 판도를 빠르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며, 틈새 종목 전용 라인업 개발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통 측면에서 오프라인은 여전히 소비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채널이고, 온라인은 브랜드 확산 속도를 결정짓는 채널이다. 한국 기업은 오프라인 플래그십과 체험형 매장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라이브커머스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감각적인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를 원하는 소비층과의 접점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베트남 스포츠웨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전환'과 '심미' 열풍... 성장하는 베트남 치과 의료 시장

- 첨단 기술 도입, 심미 치과, 덴탈 투어리즘이 이끄는 베트남 치과 시장
- 디지털 장비, 고급 소재, 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진출 기회 모색 필요

### 첨단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하는 베트남 치과 시장

리서치앤마켓은 2024년 베트남 치과 시장규모를 약 42억1000만 달러로 평가했으며, 시장이 연평균 4.75%씩 성장해 2030년에는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치과 전문 국립병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인구의 90%가 치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예방 및 치료 수요 확대와 함께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2024년 기준 베트남에는 약 3000개의 치과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독립적인 소규모 클리닉 형태로 시장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중 ISO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약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설과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Kim Dental, Peace Dentistry, Nha Khoa Paris 등 대형 치과 체인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치과용 현미경, 캐드캠(CAD/CAM), 콘빔 CT(cone-beam CT), AI 기반 진단 시스템, 로봇 임플란트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디지털 워크플로우 도입은 상담 및 보철물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기술 정확도와 환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하노이·호치민·다낭 등 주요 도시에서는 세라믹 보철물이 1~2일 내 완성될 정도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이 자리잡았다. 스태티스타는 2025년 베트남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1% 성장한 454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지 대표 치과 체인 Kim Dental이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투자자로부터 약 2000만 달러를 유치했고, 유명 P치과 역시 500만 달러를 투자받아 사업 확장과 시설 개선에 나서는 등 디지털 전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미소 디자인'에 열광하는 베트남

소득 증가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심미 치과 기술도 베트남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 디지털 광고 플랫폼 기업 아딧마(Adtima)가 발표한 '2024 치과 케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심미 치료에 일반 치료보다 2배 가량의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기술은 치아미백(23%), 교정(12%), 포세린 베니어(11%) 순으로 나타났다. 하노이 국립 치과 전문병원 관계자는 하노이무역관에 “베트남의 심미 치과 분야는 새로운 기술, 재료, 치료법의 빠른 도입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수요 확대에 발맞춰, 한국계 의료진이나 투자자가 운영하는 치과들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클리닉은 한국식 심미 치과 프로토콜과 신기술을 도입해 현지 환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곳은 한국 의료진이 직접 진료를 맡아 한국식 임상 기준과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 K-덴탈에 열리는 기회

베트남 치과 시장의 빠른 성장은 한국 관련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성능 디지털 장비와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심미 치료의 인기로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투명 교정 장치 등 고급 소재 시장이 유망하다. 또한, 시장이 다수의 소규모 클리닉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표준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형 프랜차이즈나 클리닉 체인의 성공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베트남은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 진료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덴탈 투어리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치과 치료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며 창출하는 수익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내수와 해외 수요가 결합된 베트남 시장은 한국 기업에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스타트업 투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로 자금 유입 촉진

베트남 재무부는 시행령 2915/QĐ-BTC를 발표, 9월 15일부터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투자 펀드 관련 행정 절차를 대폭 축소할 방침임. 대표적으로 자금 관련 공시 의무가 지방 사업자 등록 기관으로 이관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을 도입하여 관련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편리해질 예정. 해당 조치는 투자 촉진과 행정 부담 경감을 통해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Vietnam News 8.29]

## ▶ 국가 대표 인프라 프로젝트, 하노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공사 시작

하노이 교통건설투자사업관리위원회는 9월 3일 하노이 수도권 고속도로 관련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BOT 계약을 완료했으며, 6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임. 총 113.52km 구간으로 3개의 대형 교량과 8개의 인터체인지가 포함되며, 총 투자금액은 56조 2,930억 동으로 국가 예산과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재원 조달됨. 완공 시 기존 교통 체증 완화와 하노이 및 인근 지방 간 연결성 개선, 지역 경제 발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가 대표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님.

[baodautu.vn 9.3]

## ▶ 세계은행, 베트남 GDP 성장률 2025년 6.6%로 둔화 전망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2025년 6.6%, 2026년 6.1%로 발표, 높은 성장 모멘텀을 보여준 상반기와 달리, 2025년 하반기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수요 감소와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베트남은 공공 투자 확대와 민간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적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Vietnam News 9.8]

## ▶ 산업통상부(MoIT), 2025년 무역 12% 성장 목표 설정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개최된 정부 회의에서 연내 12% 수출 증가 목표(약 3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2024년 1-8월 무역액은 14.4% 증가했으나 아직 로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부족하며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올해 베트남 수출입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제품, 공급원 다각화 전략, 특히 유망 신흥시장 개척, 다각적인 FTA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무역 성장이 주요 핵심과제임.

[vov.vn 9.9]

## ▶ 디지털 기술 산업법 시행 계획 발표

2025년 9월 11일 베트남 부총리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 시행 계획을 발표,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의 역할, 일정, 책임을 명확히 설정함. 발표된 세부 로드맵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와 재무부는 산업기술법 시행을 위한 법령과 지침을 2025년 9월 3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2026년부터 국가산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여야 함. 또한, 과학기술부는 빠른 시일내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업데이트하고, 향후 디지털 데이터 품질 보증을 위한 국가 기술 표준과 규정 적용을 담당할 예정

[vtv.vn 9.10]

## ▶ 1~8월 교역 규모 약 6,000억 달러에 육박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의 총 무역액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약 5,97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수출은 14.8% 증가한 3,059억 6천만 달러, 수입은 17.9% 증가한 2,919억 7천만 달러로 무역 흑자는 139억 9천만 달러에 달함. 특히 FDI 부문의 수출입이 각각 19.3%, 25.1% 증가했고, 미국과 중국이 최대 수출 및 수입국가로 자리잡고 있음.

[Government News 9.10]

## ▶ 주요 부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고도화를 위한 개혁 추진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베트남 증시 시장 개선을 위해 시행령 No 245/2025/ND-CP를 도입, 외국인 참여 제한 등 주요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함. 대표적인 변화로는 상장 승인 후 거래 개시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외국인 소유 제한 완화 및 거래 코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됨. 해당 조치 시행시, 관련 규제가 국제 관행에 보다 부합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투자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Vietnam News 9.14]

## ▶ 2025년 AI 법 제정, 지속가능 성장·경쟁력 강화 목표

베트남 정부는 2025년 말까지 AI법을 제정해 포괄적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함. 과학기술부는 AI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개방형 AI 기술과 '메이드 인 베트남' 전략을 통해 자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함. 또한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국가 AI 윤리 강령 수립 등 정책과 자원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Government News 9.15]

## ▶ 의료 체계 강화 위한 결의안 72-NQ/TW 발표

베트남은 최근 발표된 결의안 72-NQ/TW를 통해 예방 중심의 기초 의료 체계 확충과 함께 2030년 및 2045년 건강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아동 평균 신장을 1.5cm 늘리고 기대수명을 75.5세, 건강수명을 68년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2030년까지 기본 의료비의 건강보험 전액 지원을 추진함. 또한 기초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와 확충을 통해 의료 인프라 완비 계획도 병행할 예정임.

[Nhandan News 9.17]

## ▶ 후에시, 동남아 최초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 시행

베트남 후에시는 세계야생동물기금(WWF)와 협력, 9월 20일부터 동남아 최초로 음료 용기 보증금 반환 시스템(DRS) 도입 계획 발표함. 이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분류 인식을 강화하는 시범 사업으로 소비자가 음료 구매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빈 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환급받는 방식임. 후에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없는 도시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 등 지역 사회의 협력을 강조함.

[Vietnam Plus 9.15]

## ▶ 총리, 편선넛과 롱탄 공항간 국제선 운영 조정 여부 검토 지시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남부 국제선 운영을 Long Thành 신공항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 지시, 공항간 운영 균형을 위한 여러 제안을 논의 중임. Long Thành 공항은 2025년 말 완공, 2026년 중반 가동을 목표로 하며, 초기 화물 중심 운영 후 단계적으로 국제선 이전을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 되고 있음. 현재 민간항공국은 전문가와 승객 의견을 수렴 중이며, 건설부는 계획 검토 및 해결책 마련 후 9월 27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

[Vietnam News 9.18]

## ▶ 신규 전자상거래법 초안, 라이브 판매자 책임·진위 검증 조항 포함 계획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금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발표, 향후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본격 진행할 계획임. 공표된 초안에 따르면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와 제휴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판매자 신원 확인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임. 정부는 해당 법안의 적용을 통해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세금 손실 방지 등을 해결하고자 하며, 국내외 판매자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을 부여함.

[Vietnam News 9.22]

## ▶ 베트남, 남태평양 투발루와 수교 체결

베트남과 투발루가 9월 24일 뉴욕 주재 유엔 베트남 대표부에서 수교 공동성명을 체결하며, 베트남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전부와 수교를 완료했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역사적 이정표로 확인하고 해양경제·관광·교육 분야 협력과 다자간 포럼 내 협조 강화를 약속했다.

[Tuoitre.vn 9.25]



##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Hoang Hoa Near-shore Wind Pow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발주처  | Minh Thach D&L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
|------|--------------------------------------------------------------------------------------------------------------------------------------------------------------------------------------------------------------------------------------------------------------------------------------------------------------------------------------------------------------------------------------------------------------------------------------------------------------------------------------------------------------------------------------------------------------------------------------------------------------------------------------------------------------------------------------------------------------------------------------------------------------------------------------------------------------------------------------------------------------|
|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Thanh Hoa province, Vietnam</li> <li>■ 프로젝트 진행상황: Preparing for investment</li> <li>■ 프로젝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pacity: 115 MW</li> <li>➢ Solar panels number: 139.000 panels with a capacity of 720-740 Wp</li> <li>➢ Installation of 9 inverter systems integrated with medium-voltage transformers, each rated at 8.800 kVA</li> <li>➢ Power generation capacity: 406,000 MWh/year</li> <li>➢ Electric price: 7.5 Us cent/kWh</li> </ul> </li> <li>■ 세부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2/2025: Approval into PDP 8 Master Plan</li> <li>➢ Q3/2025: Investment policy approval</li> <li>➢ Q1-Q2/2026: Bidding</li> <li>➢ Q2/2026: Construction commencement</li> <li>➢ Q1/2027: COD</li> </ul> </li> </ul> |

##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2)]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 ◇ 미국 상무부, 8월 5일 상반기 수출입 통계 발표. 무역 적자 사상 최대 기록
- ◇ 1~3월 수입 급증... 관세 본격화에 대비해 수입 시기를 앞당긴 결과로 해석
- ◇ 자동차와 철강 관세 영향, 미국 상반기 대한 수입은 전년비 4.4% 감소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3)]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 한미 양국 정상, 미 백악관에서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 개최
- ◇ 한미 협력 및 동맹 강화, 한미 무역 합의 내용 등 구체화
- ◇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공조를 위한 양국의 지속적인 의지 재확인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4)] '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

- ◇ '25년 2분기 청정 투자 680억 달러, 소매·전력 부문 건조세 속 제조·탈탄소 부문 위축
- ◇ 미집행 청정 투자 5,170억 달러, 정책 변화가 미집행 투자 전환의 핵심 변수로 작용
- ◇ 세제지원 축소·공급망 재편 압력 속 투자 양극화 심화, 중장기적 정책 대응이 과제로 부각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5)] 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

- ◇ 올해 트럼프 2기 출범 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0.25%p 인하
- ◇ 연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공식 시사... 10월 12월 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
- ◇ 현지, 정책 효과의 핵심 변수로 소비자 신뢰 회복과 고용시장 안정 여부 지목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6)] 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

- ◇ 미국 법무부, 지난 8월 세관국경보호청, 국토안보부가 참여하는 범관세 사기·회피 단속 전담 합동 태스크 포스 출범
- ◇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위장, 상품 분류 허위 기재, 가치 축소 신고, 수입 쪼개기 및 구조적 관세 회피 등이 유형이 주요 대상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산업부, 베트남과 국장급 회의...현지 기업 애로 해소 논의

산업부, 베트남 산업부·재무부와 화상회의...투자기업 애로 협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베트남 정부와 국장급 회의를 열고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12일 베트남 재무부와, 1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각각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또 럽 당서기장의 국민 방한 때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성과 이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열린 제1차 한-베트남 재무부 국장급 회의에는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도 반 수 베트남 재무부 외국인투자청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섬유산업연합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도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베트남 진출 섬유기업의 미환급 부가가치세 문제, HD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 인수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승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지원 등 현지 기업의 주요 애로 사항이 논의됐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 문제를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며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제4차 코리아 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 확대와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원전 인력 양성 양해각서(MOU) 이행 계획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공유했다. 한국 측은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의 전력판매 관련 규제 완화와 LNG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은 해결책을 신속히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뉴스1 , 2025.9.15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학산, 베트남 현지화와 친환경 혁신으로 스포츠 신발 시장 선도

이동영 대표

### 1. (주)학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스포츠 전문 신발 제조 및 수출 기업, (주)학산입니다. 1988년 '학산무역'으로 시작해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고부가가치 신발을 생산해왔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베트남 빈증과 부산 녹산 신발 직접화단지로 생산 역량을 통합하여 전문적인 신발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GORE-TEX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 스포츠화, 아웃도어 신발, 안전화 브랜드들과 협력하며 미주,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하는 개발 및 제조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에는 자체 스포츠 브랜드 '비트로(VITRO)'를 런칭하여 테니스, 배드민턴 등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비트로는 국내 80여 개 대리점과 200여 개 전문점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중국, 대만,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베트남 전문 유통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테니스와 피클볼을 중심으로 브랜드 홍보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소재 발굴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특허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세계 최대 스포츠/아웃도어 박람회인 ISPO 뮌헨에서 지속가능성 분야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등 친환경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설명 : 이동영 대표가 'ISPO 뮌헨 2024' 전시회에서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어워드를 수상한 뒤 수상작 '클립톤2 (CLIFTON2)'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 학산 제공>



## 2.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산은 단순한 신발 제조를 넘어, 기능성, 품질,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세 가지 주요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첫째, 기능성 스포츠화 제조입니다. 자체 브랜드 '비트로(VITRO)'를 통해 테니스화, 배드민턴화, 러닝화 등 다양한 스포츠 전문화를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자체 개발 연구실과 공장을 통해 제품 기획,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운동 성능을 높이고 발의 피로를 줄이는 고기능 설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설명: 비트로(VITRO) 브랜드의 대표 제품인 남녀공용 경량 러닝화 ‘애슬론(ASLON)’>

둘째, 특수 기능성 신발 생산입니다. 전문화된 GORE-TEX 생산 및 개발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극한 환경에서의 방수, 투습,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아웃도어 및 산업 현장용 안전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현장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착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원페이스(One face) 접착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기술적 난관이었던 IP EVA 제조 과정의 불량률을 크게 낮추는 특허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수출 및 OEM/ODM 사업입니다. 품질 기준이 높은 미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스위스 등 15개 고객사와 협력하여 전 세계 20여 개국에 OEM/ODM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360도 방/투습이 가능한 GORE-TEX Surround 기술을 적용한 유럽 CE 인증 안전화를 비롯해,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내한성 신발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신발을 개발·제조하고 있습니다.



### 3.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베트남은 우수한 인력과 역동적인 경제, 사회적 환경 덕분에 늘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단순 제조를 넘어 자체 개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 시장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 아시아 시장의 '트렌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경쟁심 덕분에 90년대 후반 저희가 처음 진출했을 때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제조 기업 뿐만 아니라 유통 및 서비스 기업들도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 4.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제조 공장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우수 인력 확보였습니다. 많은 기업이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전과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이탈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신규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했습니다. 특히 유연한 생산 현장 운영을 위해 여러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다기능 인력'을 꾸준히 훈련하고 늘려나갔습니다. 사무직, 기술직뿐만 아니라 현장 인력에게도 존중을 표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비록 다소 더디지만, 덕분에 견고한 생산 조직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설명: 빈증지역에 위치한 학산 비나 전경>

## 5.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제품)이 있으신가요?

올해 베트남 현지 유통사와 비트로(VITRO) 브랜드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베트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의 강점인 테니스, 배드민턴 신발 및 의류와 함께, 최근 베트남에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피클볼 전용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선보일 계획입니다. 베트남을 교두보 삼아 미국, 태국 등으로도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기술과 생체역학(Biomechanics)을 접목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와 공법을 적용하면서도 인체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시장 확장을 시도할 것입니다.

## 6.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에게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베트남은 한국 기업과 브랜드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국내 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를 단순히 활용하기보다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장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며 역동적입니다. 단순히 'Made in Korea'라는 프리미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문화, 취향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디자인, 마케팅 방식, 유통 채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젊고 교육열이 높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들을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시장은 '기회의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 베트남의 전자정부로의 전환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 들어가며

최근 베트남은 행정구역 개편을 비롯하여 행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직후 시스템 오류로 전국적으로 한달간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최근 변화 중 외국인 투자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가지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노이시의 사업자등록 행정절차 전자서명 의무화, 그리고 새로운 투자법 시행령 239/2025/ND-CP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류 제출 의무입니다.

### 하노이시 기업등록절차 전자서명 의무화

#### 가. 주요 내용

본 절차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기업등록분야 모든 행정절차 결과물에 대해 전자서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변경사항 증명서 등 모든 결과물은 전자서명 문서로만 발급되며 원본 하드카피는 시스템 장애 또는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발급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선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2025년 4월29일자 명령서 08/CT-UBND를 발급하였으며, 모든 행정기관, 산하부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기업등록절차 전자서명 결과물의 법적 효력 인정
- 다른 행정절차에서 원본문서 요구 금지
-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행정처리 절차의 일원화

#### 나. 실무적 시사점

가장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이 겪는 이슈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앞으로 종이 형태로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원본서류에 대한 강한 신뢰문화가 존재하며 은행계좌개설, 세무신고, 계약상대방의 실사 등에서 여전히 원본 서류를 확인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과 실무 현실사이에 당분간 여러가지 괴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자서명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으며, 진위 확인을 위한 절차가 좀 더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투자법 시행령 개정

새로운 투자법 시행령 239/2025/ND-CP는 기존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전자문서 제출 및 전자서명 제도와 연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가. 주요 내용

투자서류에 대해 투자등록증, 투자정책 승인신청서 등 모든 행정절차 서류에 대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자자가 전자서류 제출을 위해 “토큰”을 구입하여 온라인 계정을 개설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가 새로이 발생한 것입니다.

### 나. 실무적 시사점

외국인 투자자가 새로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원본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였으나, 이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전자문서 제출을 위해서는 토큰을 구입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토큰 발급절차, 토큰 내용 등이 완비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5년 하반기에 투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소결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행정과 전자정부 구축을 목표로 과감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면 전자정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변화의 준비를 완비하지 않은 채 새로운 규정이 동시에 여러가지가 시행되다 보니 실무상 혼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스템적 안전장치에 대한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9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부가세법의 주요한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된 베트남 부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주요사항(계속)

지난호에서 새로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를 한번 더 주요관심 사항에 대해 종전과 달라진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VAT 면제 기준 상향: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동(VND) 이하였던 가게 및 개인 사업체에 대한 VAT 면제 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2억 동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가세율 2% 인하 정책 연장: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율 2% 인하 정책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및 금속 가공품, 광물, 정제 석유, 화학 제품 등 일부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원천징수 의무 부활: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법령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 판매자들을 대신하여 부가세와 개인소득세(PIT)를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업계 반발로 폐지되었던 규정을 다시 도입한 것으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세금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신규 부가세 면제 품목 및 환급: 개정 법률은 비료, 농업용 기계, 오프쇼어 어선, 특정 증권 시장 서비스 등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투자 단계에서 누적 투입 부가세가 3억 동 이상에 도달하는 사업 확장 투자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전자 결제 의무화: 부가세 청구서 발행 시 전자 결제 증빙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탈세 방지 및 세금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세의 공제 및 환급

#### 1) 부가세의 공제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일반 소비세이자 다단계 거래세인 간접세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의 과세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직접법’ 또는 ‘공제법(공식적으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지칭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조건에 해당되지 일반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공제법을 선택/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이야기하기전에 공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두가지가 사항이 선후관계로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부가세의 환급은 납세자인 사업자가 직접 환급세액을 산출하고 환급신청을 하게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부가세 공제금액이 정확하게 선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는 바로 부가세 환급가능대상 금액의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됩니다.

## 2) 부가세의 환급

앞선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개정된 부가세 규정 Law No. 48/2024/QH15의 제15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부가세 환급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 5% 세율의 부가가치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만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업체의 경우, 12개월 또는 4분기 후에 도 전액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3억 동(VND)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 후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상품은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분야의 사업체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법 규정에 따른 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 중 충분한 사업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시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환급 조건, 납세자 및 세무 당국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 3) 사례소개

현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는 일부 지역의 법인들에게서 규정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부가세 환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Law No. 48/2024/QH15의 제15조의 1항 a)목을 보면 영문번역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Refund of VAT on exports:

a) In a month/quarter, if residual input VAT credit on exported goods and services of a business establishment is 300 million VND or more, it will be refunded by month/quarter, **unless the imports are then exported to another country;** “

상기 빨간색으로 하일라이트한 부분을 보면 ‘**unless ~**’로 표현된 부분이 ‘수입하지 않고 타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하지 않는다는 뜻은 베트남 국내에서 일반매입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는 베트남어 원문(trừ trường hợp hàng hóa nhập khẩu sau đó xuất khẩu sang nước khác)과는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베트남어 원문에는 'unless ~' 가 영어로 'except for(베트남어 원문상 표현은 trừ trường hợp)'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자면, 베트남으로 수입 후 타 국가로 재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상기 영문과 베트남어 원문의 표현상의 차이에 따른 해석이 상이함을 근거로 부가세 환급 시 시비를 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계무역('중개무역'과는 다르므로 용어상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과 같이 베트남으로 직접 수입 후 타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2) 부가세의 환급에서 '- 수입 후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상품은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 맺음말

다음호에서는 새로운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입 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한 수수료 부과·납부에 관한 규정

FTA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2025년 8월 28일, 베트남 재무부는 Circular No. 86/2025/TT-BTC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통관 중인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관세 및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세관당국과 위임기관의 징수·관리 권한, 납부자의 납부 의무, 수수료·요금 면제 대상 및 납부 방법 등을 체계화하고 명확히 하여, 통관 절차의 일관성 및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동 통지문의 주요 내용과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1. 적용범위 및 규제대상

본 통지문은 운송 중인 상품 및 차량에 대한 관세 및 요금의 요율,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통지문은 다음 대상에 적용됩니다:

- a) 운송 중인 상품 및 차량에 대한 관세 및 요금 납부자
- b) 운송 중인 상품 및 차량에 대한 관세 및 요금 징수자
- c) 통관수수료 및 운송 중인 상품·차량에 대한 요금의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에 관여하는  
기타 기관 및 개인

### 2. 납부자 및 징수자

본 통지문에 따른 납부자와 징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자

- a) 입·수출 및 출입국 차량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관 및 개인
- b) 2020년 6월 10일자 정부령 제64/2020/ND-CP호에 따라 재수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된 상품에 대한 ATA 카르네를 신청하는 기관 및 개인
- c) 지식재산권(IPR) 소유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으로서, 지식재산권 대상 물품의 통관검사·감독 또는 절차중단을 신청하는 기관 및 개인
- d) 운송 중인 상품 및 차량에 대한 요금 납부자는 베트남을 경유하는 상품 및 차량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관 및 개인



## 징수자

- a) 관세법에 따른 세관 당국
- b) 세관으로부터 통관수수료 및 운송 중인 상품·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를 위임받은 기관 (ATA 카르네 발급 관련 통관수수료를 징수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 포함)

## 2. 수수료/요금

본 회람문에 첨부된 표(Biểu mức thu)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율                |
|---------------------------------------------------------------------|-------------------|
| 수출, 수입, 출국 및 입국 차량에 대한 세관 수수료                                       | VND 20.000/신고     |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감독, 관세검사·감독 실시 조치 연장, 관세절차 정지 등에 대한 세관 수수료 | VND 200,000/신청    |
| 택배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수수료                                    | VND 10.000/신고     |
| ATA 카르네 발급을 위한 세관 수수료                                               | VND 1,000.000/카르네 |
| ATA 카르네 교체 발급 수수료 (분실 또는 대체할 때)                                     | VND 500,000/카르네   |
|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수수료                                                    | VND 200,000/신고    |
| 도로 교통 차량(자동차, 트랙터 및 세미트랙터 포함)에 대한 요금                                | VND 200,000/차량    |
| 수상 운송 차량(선박, 카누, 예인선, 바지선 포함)에 대한 요금                                | VND 500,000/차량    |

## 4. 면제 대상(Exemptions)

다음의 경우에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통과, 차량의 입국, 출국 또는 통과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는 기관 및 개인은 통과 중인 물품 및 차량에 대한 통관 수수료 및 비용이 면제됩니다.

- 1) 인도적 지원 또는 무상 지원 물품; 국가 기관, 정치 단체, 사회정치 단체, 사회 단체, 사회 전문 단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선물(면세 허용 범위 내); 인도적 또는 자선적 선물; 외교관 면세 규정에 따른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소지품; 기내 반입 수하물.국경 주민(biên giới cư dân)의 일정 범위 내 물품 교역
- 2) 국경 거주자의 면세범위 내 교역 물품 및 차량
- 3)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또는 정부 간 약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 5. 납부 및 관리 절차

(1) 납부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① 세관 계좌에 직접 납부: 국가재정에 납부 대기 중인 세관 계좌에 현금 또는 비현금 방식으로 납부
- ② 위임 기관에 납부: 세관당국으로부터 징수를 위임받은 기관에 현금 또는 비현금 방식으로 납부

(2) 한 달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징수관에게 월 단위 납부 등록을 하고, 세관이 공표한 신고 목록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관에게 해당 수수료 및 요금을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 6. 수수료 관리 및 사용

세관 당국은 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징수 비용(수수료 및 요금 징수 위임 비용 포함)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된 수수료 전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보유된 수수료는 정부령 제82/2023/ND-CP호 제1조 4항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됩니다. 수수료는 정부령 제126/2020/ND-CP호 제39조에 따라 세관 당국과 위임 기관이 합의한 대로 위임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 7. 종전 규정과의 관계

본 통지문은 기존의 Circular no. 14/2021/TT-BTC(2021년 2월 18일자)를 대체합니다. 발효일부터 이전의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되며, 본 통지문에 언급된 문서가 수정, 보충 또는 대체되는 경우, 새로운 문서가 우선합니다.

## 8.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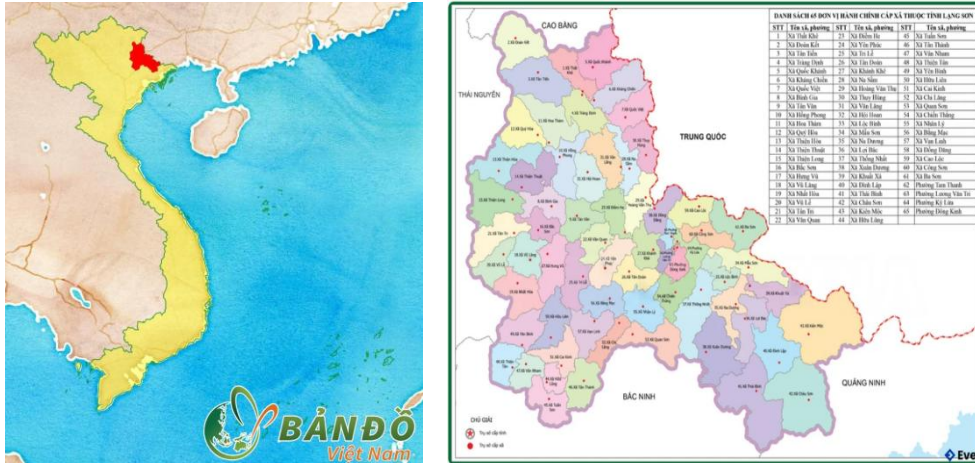
Circular 86/2025/TT-BTC는 수출입 물품 및 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관세 수수료와 요금의 징수·납부·관리 규정을 새로 정한 것으로, 수출기업은 향후 신고서·특송·ATA수첩 등 각종 절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검사 등에 대한 별도 수수료도 부과되므로 제품 서류와 표시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통과 운송을 활용하는 기업은 물류비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 목적, 외교면제, 국경주민거래 등 면제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가격 및 조건 협상 시 이러한 수수료 부담을 반영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규정 시행일 이후 미준수 시 지연 및 벌칙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 절차를 조정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 - 랑선성

### 기본정보

| 구분                    | 내용                                                                                                                                                                                                                                                                                                                                                                                                                                                                                                                                            |
|-----------------------|-----------------------------------------------------------------------------------------------------------------------------------------------------------------------------------------------------------------------------------------------------------------------------------------------------------------------------------------------------------------------------------------------------------------------------------------------------------------------------------------------------------------------------------------------|
| 면적-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 8,310.09 평방 킬로미터</li> <li>인구 : 881,384 명. 도시 거주 비율 : 23.6%</li> </ul>                                                                                                                                                                                                                                                                                                                                                                                                                             |
| 지정학적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리 좌표 : 북위 21°19'~22°27', 동경 106°06'~107°21'</li> <li>행정 중심지 : 하노이에서 국도 1A 또는 고속도로를 따라 약 154km 거리</li> <li>북쪽 : 까오방(Cao Bang)성</li> <li>동쪽 : 중국 광시성과 접경, 국경선 길이는 약 231km, 국제 관문 2개소 : '흐우응이(Huu Nghi)'국경검문소(차량), '동당(Dong Dang)'국경검문소(철도), 공동 국경검문소 2개소 : 치마(Chi Ma), 떤타인(Tan Thanh)</li> <li>서쪽 : 타이응우옌(Thai Nguyen)성</li> <li>남쪽 : 박닌(Bac Ninh)성, 쩡닌(Quang Ninh)성</li> </ul>                                                                                                                         |
|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도 1A : 하노이-박닌-랑선-흐우응이 국경검문소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간선축. 베트남과 중국 간 수출입 화물 운송의 가장 중요한 노선임.</li> <li>하노이-박장-랑선 고속도로(CT.03) : 이미 개통되어 하노이에서 랑선시까지 이동 시간이 약 2시간 30분으로 단축됨. 국도 4A, 4B : 랑선성을 까오방성, 쩡닌성과 연결. 국도 279 : 랑선성을 타이응웬성, 박닌성과 연결.</li> </ul> </li> <li>철도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노이-동당 철도노선(박닌, 랑선 경유) : 약 162km 길이, 중국(팡뚜옹-난닝)과 직결되는 유일한 노선. 동당역 : 국제 연계역으로,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중국으로 통과하는 관문, 랑선역 및 기타 환승역 : 화물 및 여객 운송을 지원.</li> </ul> </li> </ul> |
| GRDP 성장률 / 1인당 GD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GRDP 성장률 : 6.01 %</li> <li>'24년 1인당 GRDP : US 2,322달러</li> </ul>                                                                                                                                                                                                                                                                                                                                                                                                                                  |
| 경제규모<br>산업별 성장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수출액 : US 664억 달러</li> <li>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건설업(7.8%), 서비스업(6.2%), 농림어업(2.78%)</li> </ul>                                                                                                                                                                                                                                                                                                                                                                                                                |
| 경제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건설업 : 23.71 %</li> <li>서비스업 : 50.31 %</li> <li>농림어업 : 21.51 %</li> </ul>                                                                                                                                                                                                                                                                                                                                                                                                                           |
| 인적자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 연령 인구 비율 : 65 %</li> <li>노동 연령 인구 중 직업 교육을 받은 비율 : 64 %</li> </ul>                                                                                                                                                                                                                                                                                                                                                                                                                                  |
| 최저임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 임금: 월 345만동(약 US 130.7달러/월), 시간당 16,600동(약 US 0.63달러/시간), 최고임금: 월 386만동(약 US 146달러/월), 시간당 18,600동(약 US 0.7달러/시간)임.</li> <li>(2024년 6월 30일자 제74/2024/NĐ-CP호 시행령에 따라)</li> </ul>                                                                                                                                                                                                                                                                                                                     |
| 외국인투자<br>(‘24.12월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외국인투자 : 22개 프로젝트, 총금액 : US 4억 1,732만 달러</li> <li>한국 투자 : 없음</li> </ul>                                                                                                                                                                                                                                                                                                                                                                                                                               |

## 투자환경



랑선성의 위치 및 지도

랑선성의 투자유치 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인프라 개선, 핵심 경제분야 육성, 그리고 사회적자원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교통

랑선성은 교통인프라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빈곤지역·초빈곤 지역과 도시 중심지 및 경제회랑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중시함. 또한, 국경경제구역의 인프라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도시 지역 내 대중교통체계 발전도 함께 모색중임.

### ➤ 관광

랑선성은 랑선 세계지질공원, 마우선(Mau Son) 국립관광지역 및 기타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완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동시에 국가특별문화재, 국가문화재, 성급문화재의 복원·보존 및 활용을 강화하고 있음. 관광 산업은 투자자본 유치의 우선 분야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음.



마우선(Mau Son) 국립관광지역



동당(Dong Dang) 기차역

## ➤ 광선성 발전 정책 방향과 로드맵

광선성은 2021~2025년 단계 및 2050년까지의 비전을 담은 성종합개발계획 실행을 통해 빠르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교통, 도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경제 구성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함.

구체적인 발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 **농림수산업:** 특산 고품질 농산물 가치사슬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현대적·집약적 농장형 축산 프로젝트, 첨단 기술을 적용한 농업·임업·수산업 단지 조성 프로젝트, 대규모 경제림 및 임하 약용식물 개발 프로젝트를 우선 유치.
- ✓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 대규모·다기능 창고 프로젝트를 집중 유치·확대하고, 스마트 국경검문소의 투자·운영을 완료하는 데 중점.
- ✓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응용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선진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브랜드 구축·지식재산권 보호를 장려하며, 혁신 창업 기업의 형성을 촉진.
- ✓ **환경보호:** 폐기물·오염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신규 투자프로젝트에서 환경보호 비용을 반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폐기물 처리기술을 연구·적용하고,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내 환경관리를 강화. 낙후 기술 사용, 환경 오염 위험이 큰 사업, 자원 집약적 사업은 확장·연장 승인을 받지 못함.
- ✓ **행정 개혁:** 행정개혁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미 승인된 사업의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결.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는 재검토·회수.

## ➤ 산업단지/경제구역을 통한 경제 발전 현황 및 발전 방향

- ✓ 광선성에는 현재 2개의 산업단지(KCN)가 있으며, 총 면적은 762헥타르임.
- ✓ 또한, 2030년까지 총 24개의 산업클러스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158.1헥타르에 달함.
- ✓ 2050년까지는 총 35개의 산업클러스터가 종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632헥타르에 이를 예정임.

## 산업단지 현황

### ➤ 산업단지 우대정책

- ✓ **적용 원칙:** 투자자가 성에서 제공하는 여러 현금성 투자 지원 정책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투자자는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토지, 건설, 세금,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됨.



✓ 지원 제외 대상 프로젝트: 수력발전, 광물자원 채굴, 상업용 주택 건설, 또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서비스의 생산·경영(단, 자동차·항공기·요트 생산은 제외)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는 성의 특별 투자 지원 정책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투자 인센티브

| 구분     | 투자지역/<br>투자지구              | 법인세/수입세/토지세                                                                                                                                                                                                                                                                                                                                                                                                                                                                                                                                                                                             |
|--------|----------------------------|---------------------------------------------------------------------------------------------------------------------------------------------------------------------------------------------------------------------------------------------------------------------------------------------------------------------------------------------------------------------------------------------------------------------------------------------------------------------------------------------------------------------------------------------------------------------------------------------------------|
| 산업단지   | 동바잉<br>(Dong Binh)<br>산업단지 | <p><b>I. 법인세 우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간 법인세율 10% 적용</li> <li>- 최대 4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최대 9년간 법인세 50% 감면</li> </ul> <p><b>II. 수출입세 우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법 규정에 따른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세 면제</li> <li>- 투자 우대 분야 또는 특별 어려운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첨단 기술기업, 과학 기술기업과 기관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부품 수입세를 최초 생산 개시일부터 5년간 면제</li> <li>-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부품으로 IT 제품,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면제</li> <li>- 환경보호 목적 수출입품 면제</li> </ul> <p><b>III. 토지 임대 우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내 노동자 기숙사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토지 임대료 면제</li> </ul> |
| 특별경제구역 | 동당-랑선<br>국경경제구역            | <p><b>I. 법인세 우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간 법인세율 10% 적용</li> <li>- 최대 4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최대 9년간 법인세 50% 감면</li> </ul> <p><b>II. 수출입세 우대 (위와 동일)</b></p> <p><b>III. 토지 임대 우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건설 기간 중(최대 3년) 토지 임대료 면제</li> <li>- 건설 완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우대 투자 분야: 전체 임대 기간 면제</li> <li>+ 일반 프로젝트: 최대 11년간 면제</li> <li>+ 특별 어려운 지역 내 구역에서의 비우대 분야 투자 프로젝트: 최대 15년간 면제</li> <li>+ 특별 어려운 지역 내 구역에서의 우대 분야 투자 프로젝트: 최대 19년간 면제</li> </ul> </li> </ul>                                                            |

| 구분 | 투자지역/<br>투자지구      | 법인세/수입세/토지세                                                                                                                                                                                                                                                                                                                                                                                                                                                                                          |
|----|--------------------|------------------------------------------------------------------------------------------------------------------------------------------------------------------------------------------------------------------------------------------------------------------------------------------------------------------------------------------------------------------------------------------------------------------------------------------------------------------------------------------------------|
|    | 특별 어려운<br>사회·경제 지역 | <p>I. 법인세 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간 법인세율 10% 적용</li> <li>- 최대 4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최대 9년간 법인세 50% 감면</li> </ul> <p>II. 수출입세 우대 (위와 동일)</p> <p>III. 토지 임대 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건설 기간 중(최대 3년) 토지 임대료 면제</li> <li>- 건설 완료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우대 투자 분야 프로젝트: 전체 임대 기간 면제</li> <li>+ 일반 우대 분야 프로젝트: 3년간 면제</li> <li>+ 특별 어려운 지역 내 투자 프로젝트: 11년간 면제</li> <li>+ 특별 어려운 지역 내 우대 분야 투자 프로젝트: 15년간 면제</li> </ul> |

## 산업단지 현황

하노이시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주요 산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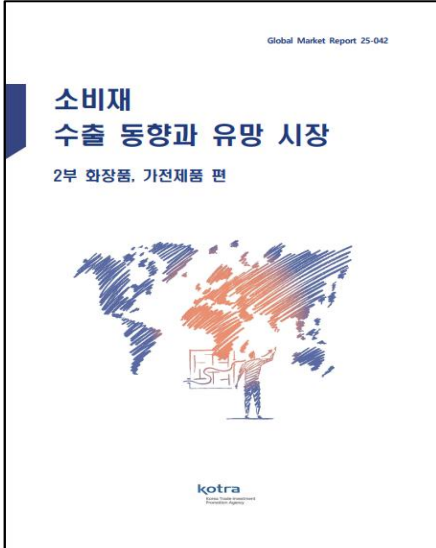
| 산업단지명           | 설립연도 | 면적     | 주요 정보                                                                                                                                                         |
|-----------------|------|--------|---------------------------------------------------------------------------------------------------------------------------------------------------------------|
| 동바잉<br>산업단지     | 2014 | 162 h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개 투자 프로젝트 유치(31.0ha).</li> <li>▪ 유치 희망 산업: ① 건축자재 ② 포장재 ③ 기계 조립 및 정밀 기계 ④ 중소 산업</li> </ul>                        |
| VSIP<br>랑선 산업단지 | 2023 | 599 h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입지(고속도로 및 철도 인접).</li> <li>▪ 현대적 인프라 개발 중.</li> <li>▪ 1단계(210ha): 부지 정리 완료, 인프라 시공 진행 중, 2026년 가동 예정.</li> </ul> |

## 투자 유망 분야

- ✓ 농업·임업·수산업,
- ✓ 관광
- ✓ 국경경제구 개발
- ✓ 과학기술
- ✓ 인프라 개발

## 투자유치기관 정보

| 기관명                   | 담당자                                      | 주소                                                                                                       |
|-----------------------|------------------------------------------|----------------------------------------------------------------------------------------------------------|
| 랑선성 투자·관광·<br>무역 진흥센터 | Mr. Hoang Xuan Thuan/센터장                 | Tel : +84-912-203-204<br>Website : <a href="https://lspa.langson.gov.vn">https://lspa.langson.gov.vn</a> |
|                       | Ms. Duong Thi Hong Van/<br>투자진흥·기업지원과 과장 | Tel : +84-983-933-785<br>Email : xuctiendautuls@gmail.com                                                |



## 소비재 수출 동향과 유망 시장 : 2부 화장품, 가전제품 편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화장품
2. 가전제품
3. 수출 유망 시장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상담 FAQ : FTA 궁금증을 한 권에!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국가별 자주 묻는 질문
2.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 소개

## 2025 베트남 박장 정밀 기계 및 제조 전시회

|      |                                                                                                                                                                                                                            |
|------|----------------------------------------------------------------------------------------------------------------------------------------------------------------------------------------------------------------------------|
| 전시회명 | 2025 베트남 박장 정밀 기계 및 제조 전시회 [Manufacturing Bac Giang 2025]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nufacturing Bac Giang'은 2025년 10월 21~23일 박장성 단지의 박장성 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리는 대규모 제조업 전시회임.</li> <li>▪ 최신 제품·장비·기술을 선보이며, 박장성 및 북부 지역의 산업화·현대화를 위한 첨단 기술·혁신 솔루션과 투자협력 기회를 제공함.</li> </ul> |
| 개최기간 | 2025.10.21 - 2025.10.23                                                                                                                                                                                                    |
| 개최장소 | Bac Giang Provincial Cultural - Exhibition Center                                                                                                                                                                          |
| 개최규모 | 6000sqm(m <sup>2</sup> )                                                                                                                                                                                                   |
| 웹사이트 | <a href="https://bacgiang.vietnammanufacturingseries.com/">https://bacgiang.vietnammanufacturingseries.com/</a>                                                                                                            |
| 산업분야 | 기계&장비, 기타                                                                                                                                                                                                                  |
| 전시품목 | 절삭공구, 자동화기계, 측정기계 등                                                                                                                                                                                                        |
| 주최자  | SES Vietnam Exhibition Services Co., Ltd<br>+84-938-212-118 / Dung.Nguyen@informa.com                                                                                                                                      |





##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구분<br>국가명 | 1988. 1. 1~2025. 8.31 기준 누계 |            | 2025. 1. 1 ~ 8.31 |           |           |
|-----------|-----------------------------|------------|-------------------|-----------|-----------|
|           | 건수                          | 투자금액       | 신규건수              | 신규투자금액    | 총투자금액     |
| 한 국       | 10,264                      | 94,042.94  | 278               | 322.97    | 4,053.28  |
| 싱가포르      | 4,223                       | 87,542.97  | 346               | 3,063.84  | 6,013.58  |
| 일 본       | 5,635                       | 79,418.46  | 188               | 877.91    | 2,399.72  |
| 대 만       | 3,364                       | 42,077.85  | 119               | 745.56    | 1,359.43  |
| 홍 콩       | 3,068                       | 40,317.49  | 294               | 786.36    | 1,837.83  |
| 중 국       | 5,836                       | 33,506.87  | 764               | 2,651.91  | 3,131.64  |
| 버진아일랜드(영) | 943                         | 24,371.46  | 26                | 317.08    | 801.52    |
| 네덜란드      | 466                         | 15,000.76  | 17                | 61.19     | 147.20    |
| 태국        | 771                         | 14,925.13  | 21                | 63.30     | 882.94    |
| 말레이시아     | 776                         | 14,613.26  | 27                | 9.75      | 1,629.70  |
| 미국        | 1,487                       | 12,312.49  | 84                | 433.65    | 576.72    |
| 기 타       | 7,285                       | 64,405.07  | 370               | 1,699.49  | 3,310.94  |
| 전체 합계     | 44,118                      | 523,534.75 | 2,534             | 11,033.01 | 26,144.50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연번  | 구분<br>산업         | 2025. 8. 31 기준 누계 |            | 2025. 1. 1 ~ 8.31 |           |           |
|-----|------------------|-------------------|------------|-------------------|-----------|-----------|
|     |                  | 건수                | 투자금액       | 신규건수              | 신규투자금액    | 총투자금액     |
| 1   | 제조, 가공           | 18,644            | 320,753.87 | 906               | 6,531.95  | 15,291.21 |
| 2   | 부동산 경영           | 1,284             | 78,321.07  | 70                | 2,366.62  | 5,426.16  |
| 3   |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 199               | 42,028.22  | 2                 | 119.40    | 307.75    |
| 4   | 호텔, 외식서비스        | 1,051             | 14,305.40  | 54                | 177.52    | 478.70    |
| 5   | 건설               | 1,859             | 10,521.28  | 30                | 9.75      | 196.11    |
| 6   | 도소매, 유지보수        | 8,826             | 12,586.68  | 862               | 352.79    | 1,210.98  |
| 7   | 물류운수             | 1,275             | 7,186.30   | 86                | 88.80     | 146.79    |
| 8   | 과학기술, 전문활동       | 5,034             | 6,339.80   | 291               | 231.95    | 1,439.34  |
| 9   | 정보통신             | 3,211             | 5,191.76   | 139               | 20.42     | 46.50     |
| 10  | 채광               | 108               | 4,885.39   | 1                 | 15.00     | 16.30     |
| 11  | 교육, 양성           | 709               | 4,710.54   | 22                | 2.56      | 114.24    |
| 12  | 농,임,수산           | 536               | 4,842.99   | 3                 | 11.00     | 31.74     |
| 13  | 예술 오락            | 152               | 3,169.42   | 2                 | 0.28      | 1.42      |
| 14  |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 87                | 3,710.09   | 6                 | 1,075.04  | 937.21    |
| 15  | 의료와 사회복지         | 156               | 1,838.74   | -                 | -         | 157.48    |
| 16  | 행정, 지원 서비스       | 715               | 1,260.36   | 52                | 23.49     | 157.68    |
| 17  | 금융, 은행, 보험       | 102               | 933.29     | 2                 | 2.60      | 159.85    |
| 18  | 기타 서비스           | 164               | 938.93     | 6                 | 3.85      | 25.02     |
| 19  | 가구내 고용활동         | 6                 | 10.64      | -                 | -         | -         |
| 합 계 |                  | 44,118            | 523,534.75 | 2,254             | 10,034.92 | 24,093.89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 구 분  | 2022  | 2023  | 2024  | 2025.8       |
|------|-------|-------|-------|--------------|
| 수 출  | 3,713 | 3,546 | 4,055 | 3,059(+33.9) |
| 수 입  | 3,589 | 3,263 | 3,807 | 2,919(+9.6)  |
| 무역수지 | 124   | 280   | 247   | 139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 품 목 명       | 2022    | 2023    | 2024    | 2025.8        |
|-------------|---------|---------|---------|---------------|
|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57,994  | 52,379  | 53,891  | 38,189(+2.4)  |
|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 55,536  | 57,336  | 72,584  | 66,872(+43.1) |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45,751  | 43,128  | 52,191  | 37,395(+13.8) |
| 섬유/직물제품     | 37,566  | 33,329  | 37,036  | 26,471(+8.5)  |
| 신발류         | 23,895  | 20,237  | 22,871  | 16,083(+7.2)  |
| 원목 및 목제품    | 16,011  | 13,467  | 16,282  | 11,122(+6.5)  |
| 철강제품        | 7,993   | 3,973   | 4,594   | 3,724(+26.4)  |
| 수송수단 및 부품   | 11,988  | 14,157  | 15,066  | 11,387(+12.7) |
| 수산물         | 10,923  | 8,971   | 10,040  | 7,156(+13.5)  |
| 원사(Yarn)    | 4,713   | 4,355   | 4,407   | 2,832(-3.1)   |
| 기 타         | 98,934  | 103,339 | 116,569 | 84,831        |
| 합 계         | 371,304 | 354,671 | 405,531 | 305,962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 품 목 명       | 2022    | 2023    | 2024    | 2025.8        |
|-------------|---------|---------|---------|---------------|
| 전자제품 및 컴퓨터  | 81,884  | 87,965  | 107,053 | 95,953(+38.2) |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45,192  | 41,579  | 48,887  | 38,865(+23.6) |
|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21,126  | 8,749   | 10,403  | 6,985(+10.2)  |
| 의류(원단)      | 14,706  | 13,016  | 14,905  | 9,916(+2.0)   |
| 플라스틱 원료     | 12,387  | 9,755   | 11,780  | 8,350(+9.1)   |
| 각종 철강       | 11,920  | 10,425  | 12,583  | 7,170(-9.2)   |
| 기타 비금속      | 9,253   | 7,626   | 9,554   | 7,286(+16.5)  |
| 플라스틱 제품     | 8,119   | 7,508   | 8,853   | 6,886(+19.9)  |
| 화학제품        | 9,144   | 7,605   | 7,735   | 5,179(+0.9)   |
| 화학물질        | 8,747   | 7,726   | 8,286   | 5,247(-7.0)   |
| 기 타         | 136,423 | 124,419 | 140,724 | 87,376        |
| 합 계         | 358,901 | 326,373 | 380,763 | 291,969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 순번 | 국가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8  |
|----|------|---------|---------|---------|---------|---------|
| 1  | 미 국  | 96,293  | 109,388 | 97,020  | 119,501 | 99,054  |
| 2  | 중 국  | 56,009  | 57,702  | 61,207  | 61,211  | 42,014  |
| 3  | 한 국  | 21,945  | 24,293  | 23,498  | 25,619  | 18,926  |
| 4  | 일 본  | 20,128  | 24,232  | 23,314  | 24,608  | 17,477  |
| 5  | 홍 콩  | 11,996  | 10,936  | 9,631   | 12,423  | 11,181  |
| 6  | 네덜란드 | 7,686   | 10,430  | 10,241  | 12,993  | 8,652   |
| 7  | 독 일  | 7,286   | 8,968   | 7,400   | 7,934   | 6,204   |
| 8  | 인 도  | 6,259   | 7,961   | 8,498   | 9,064   | 6,891   |
| 9  | 태 국  | 6,161   | 7,476   | 7,192   | 7,782   | 5,582   |
| 10 | 영 국  | 5,765   | 6,065   | 6,345   | 7,543   | 5,480   |
|    | 기 타  | 96,782  | 103,853 | 100,325 | 116,853 | 84,501  |
|    | 합 계  | 336,310 | 371,304 | 354,671 | 405,531 | 305,962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 순번 | 국가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8  |
|----|---------|---------|---------|---------|---------|---------|
| 1  | 중 국     | 109,874 | 117,866 | 110,644 | 114,020 | 117,928 |
| 2  | 한 국     | 56,155  | 62,088  | 52,511  | 55,925  | 39,018  |
| 3  | 대 만     | 20,772  | 22,631  | 18,421  | 22,741  | 21,088  |
| 4  | 일 본     | 22,648  | 23,373  | 21,638  | 21,588  | 16,020  |
| 5  | 미 국     | 15,270  | 14,470  | 13,822  | 15,102  | 12,135  |
| 6  | 태 국     | 12,564  | 14,092  | 11,797  | 12,447  | 8,583   |
| 7  | 오스트레일리아 | 7,946   | 10,144  | 8,533   | 7,592   | 4,691   |
| 8  | 말레이시아   | 8,148   | 9,124   | 7,809   | 9,133   | 7,206   |
| 9  | 인도네시아   | 7,587   | 9,641   | 8,728   | 10,527  | 7,484   |
| 10 | 인 도     | 6,950   | 7,086   | 5,864   | 5,829   | 3,850   |
|    | 기 타     | 64,320  | 68,386  | 66,606  | 105,859 | 53,966  |
|    | 합 계     | 332,234 | 358,901 | 326,373 | 380,763 | 291,969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8        |
|------|---------------|---------------|---------------|--------------|---------------|
| 수출   | 56,729(+16.9) | 60,972(+7.5)  | 53,479(-12.3) | 58,321(+9.1) | 34,654(+5.0)  |
| 수입   | 23,965(+16.5) | 26,726(+11.5) | 25,941(-2.9)  | 28,440(+9.6) | 17,707(+10.1) |
| 무역수지 | 32,763        | 34,246        | 27,550        | 29,880       | 16,947        |

자료원: KITA

##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 품목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8        |
|--------------|--------------|--------------|---------------|---------------|---------------|
| 반도체          | 14,026(22)   | 16,240(15.8) | 12,729(-21.6) | 18,039(+41.7) | 15,601(+39.5) |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12,050(26.1) | 12,527(4.0)  | 12,350(-1.4)  | 11,227(-9.1)  | 6,240(-14.7)  |
| 석유제품         | 1,157(-3.2)  | 3,733(222.3) | 3,327(-10.8)  | 2,731(-17.7)  | 1,491(-23.7)  |
| 무선통신기기       | 3,315(-4.2)  | 2,358(-29.2) | 2,166(-8.1)   | 2,511(+15.9)  | 1,538(-8.8)   |
| 합성수지         | 2,415(49.5)  | 2,581(6.9)   | 2,001(-22.5)  | 2,333(+16.8)  | 1,462(-7.8)   |
| 기구 부품        | 2,405(7.3)   | 2,194(-8.8)  | 1,861(-15.1)  | 1,772(-4.8)   | 1,179(-3.7)   |
| 플라스틱 제품      | 1,174(5.3)   | 1,067(-9.2)  | 1,021(-4.2)   | 1,055(+3.4)   | 700(-3.4)     |
| 철강판          | 1,267(20.4)  | 1,069(-15.6) | 887(-17.0)    | 994(+12.0)    | 702(+22.9)    |
| 기타기계류        | 957(43.0)    | 793(-17.1)   | 801(+1.0)     | 664(-17.0)    | 513(30.8)     |
| 계측제어분석기      | 717(4.5)     | 815(13.6)    | 734(-9.9)     | 593(-19.1)    | 388(-3.0)     |
| 기타           | 17,039       | 17,242       | 15,612        | 16,402        | 10,267        |
| 합계           | 56,729(16.9) | 60,972(7.5)  | 53,489(-12.3) | 58,321(+9.1)  | 40,081(+5.4)  |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 품목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8        |
|--------------|--------------|--------------|---------------|--------------|---------------|
| 무선통신기기       | 5,579(12)    | 5,986(7.3)   | 4,543(-24.1)  | 4,678(+3.0)  | 2,851(-1.5)   |
| 의류           | 3,393(7.9)   | 3,840(13.2)  | 3,542(-7.7)   | 3,593(+1.4)  | 1,842(-1.4)   |
| 컴퓨터          | 1,659(30.6)  | 1,948(19.1)  | 2,075(+6.6)   | 2,383(+14.9) | 1,608(+17.6)  |
| 반도체          | 750(33.8)    | 787(5.0)     | 2,053(+160.9) | 2,976(+45.0) | 2,502(+70.4)  |
| 산업용 전기기기     | 725(26.2)    | 970(33.8)    | 1,396(+44.0)  | 1,699(+21.7) | 1,123(+17.7)  |
| 신변잡화         | 984(-4.4)    | 1,250(27.2)  | 1,252(+0.1)   | 1,221(-2.5)  | 714(+0.2)     |
| 목재류          | 755(19.5)    | 942(24.8)    | 722(-23.3)    | 681(-5.7)    | 364(-8.5)     |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876(-14.7)   | 783(-10.5)   | 657(-15.9)    | 598(-9.1)    | 407(+16.3)    |
| 기구부품         | 624(29.6)    | 654(4.8)     | 571(-12.7)    | 654(-14.6)   | 398(+17.5)    |
| 영상기기         | 426(8.9)     | 441(3.6)     | 409(-7.2)     | 414(+1.2)    | 232(-1.7)     |
| 기타           | 8,161        | 9,103        | 8,718         | 9,543        | 5,666         |
| 합계           | 23,966(16.5) | 26,726(11.5) | 25,938(-2.9)  | 28,440(+9.6) | 17,707(+10.1) |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 2024~2025년 주요 경제지표 >

| 구 분    |                         | 시 기       | 단위 | 국 가  |       |       |       |       |      |
|--------|-------------------------|-----------|----|------|-------|-------|-------|-------|------|
|        |                         |           |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태국    | 필리핀  |
| GDP증가율 |                         | 2024년(연간) | %  | 7.09 | 5.03  | 4.4   | 5.1   | 2.5   | 5.7  |
|        |                         | 2025년 1Q  | %  | 6.93 | 4.87  | 4.1   | 4.4   | 3.2   | 5.4  |
|        |                         | 2025년 2Q  | %  | 7.96 | 5.12  | 4.3   | 4.4   | 2.8   | 5.5  |
| 생산     | 산업생산<br>(증가율 또는<br>지수)  | 2024년(연간) | -  | 8.4  | N/A   | 124.9 | 133.1 | 96.6  | 1.5  |
|        |                         | 2025년 6월  | -  | 10.8 | N/A   | 126.4 | 138.3 | 97.4  | 4.3  |
|        |                         | 2025년 7월  | -  | 8.5  | N/A   | 134.4 | N/A   | 93.3  | 4.5  |
|        | 구매관리자지수<br>(PMI)        | 2024년(연간) | -  | 51.0 | N/A   | N/A   | 49.35 | 49.9  | N/A  |
|        |                         | 2025년 6월  | -  | 48.9 | 46.9  | 50.0  | 49.3  | 51.7  | 50.7 |
|        |                         | 2025년 7월  | -  | 52.4 | 49.2  | 49.9  | 49.7  | 51.9  | 50.9 |
| 소비     | 소비자동향지수                 | 2024년(연간) | -  | N/A  | N/A   | N/A   | N/A   | N/A   | N/A  |
|        |                         | 2025년 6월  | -  | N/A  | 117.5 | N/A   | N/A   | N/A   | N/A  |
|        |                         | 2025년 7월  | -  | N/A  | 117.8 | N/A   | N/A   | N/A   | N/A  |
|        | 소매판매                    | 2024년(연간) | -  | 9.0  | N/A   | 104.0 | 179.2 | 15.3  | 1.8  |
|        |                         | 2025년 6월  | -  | 8.3  | 1.3   | 99.9  | 187.2 | 30.5  | 0.8  |
|        |                         | 2025년 7월  | -  | 9.2  | 4.8   | 106.7 | N/A   | N/A   | N/A  |
|        | 소비자물가<br>(증가율 또는<br>지수) | 2024년(연간) | %  | 3.63 | N/A   | 2.4   | 1.8   | 108.2 | 3.2  |
|        |                         | 2025년 6월  | %  | 3.57 | 1.87  | 0.8   | 1.1   | 100.4 | 1.3  |
|        |                         | 2025년 7월  | %  | 3.57 | 1.3   | N/A   | N/A   | N/A   | 1.3  |
| 투자     | 고정자산투자                  | 2024년(연간) | %  | -3   | 4.61  | N/A   | 3.1   | N/A   | N/A  |
|        |                         | 2025년 6월  | %  | 32.6 | N/A   | N/A   | N/A   | N/A   | N/A  |
|        |                         | 2025년 7월  | %  | 27.3 | N/A   | N/A   | N/A   | N/A   | N/A  |
| 고용     | 실업률                     | 2024년(연간) | %  | 2.24 | N/A   | 2.0   | 3.2   | 1.00  | 3.8  |
|        |                         | 2025년 1Q  | %  | 2.20 | N/A   | 2.03  | 3.2   | 0.87  | 4.0  |
|        |                         | 2025년 2Q  | %  | 2.24 | N/A   | 1.97  | 3.0   | 0.87  | 3.9  |
| 무역     | 수출증가율                   | 2024년(연간) | %  | 14.3 | 2.28  | N/A   | 5.7   | 5.5   | △0.6 |
|        |                         | 2025년 6월  | %  | 16.3 | 5.25  | 10.5  | -3.5  | 15.5  | 26.1 |
|        |                         | 2025년 7월  | %  | 16.0 | 9.86  | 8.5   | 6.8   | 11.0  | 17.3 |
|        | 수입증가율                   | 2024년(연간) | %  | 16.7 | 5.31  | N/A   | 13.2  | 5.9   | 1.4  |
|        |                         | 2025년 6월  | %  | 20.2 | 12.07 | 0.0   | 1.2   | 13.1  | 10.8 |
|        |                         | 2025년 7월  | %  | 17.8 | -5.86 | 7.9   | 0.6   | 5.1   | 2.3  |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 2025 APEC 경상북도 투자포럼

### 베트남 투자 상담 참가 모집



'25.10.16(목) 10:00 ~ 17:00



경주 힐튼호텔 주니퍼룸

### 주요 상담 내용

2025 APEC 경상북도 투자포럼에서 베트남 투자유치 대표단이 참가하여 투자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표단에는 베트남 정부, 지방 투자유치기관,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및 전문 컨설팅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 투자자 여러분께 **베트남의 최신 투자 정책, 세제 혜택, 금융 제도와 산업단지별 인센티브**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상담 내용

- 베트남 산업단지 및 정부 관계자와 직접 상담
- 베트남 현지 투자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 획득
- 향후 투자 추진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 초청 대상

- 베트남 투자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
- 신규 시장 개척 및 해외 생산거점 확대를 검토 중인 투자자

### 상담 신청 및 문의



코트라 하노이

- 복덕규 팀장 | bokkotra@kotra.or.kr | 카카오톡 : kotrabok2
- Tran Thu Quynh 대리 | thuquynh1124@kotra.or.kr |
- ☎ (+84) 947-595-626

### 신청 링크



## 북부지역 찾아가는 통관애로 간담회

### 1. 행사개요

| 구분   | 내용                                                               |
|------|------------------------------------------------------------------|
| 일시   | '25.10.21.(화) 16:00~20:00                                        |
| 장소   | 흥옌 VTK 공단관리 사무실 1층 대회의실<br>(Xuân Trú, Ân Thi District, Hưng Yên) |
| 참석대상 | 베트남 북부, 흥옌성 주변 기업인 누구나                                           |

### 2. 프로그램

| 시간<br>(베트남 기준) | 내용                       | 비고                                      |
|----------------|--------------------------|-----------------------------------------|
| 16:00 – 16:10  | 10' 설명회 안내 및 축하          | KOCHAM<br>KOTRA<br>KBIZ                 |
| 16:10 – 16:50  | 30' - 美상호관세 대응 원산지 관리 방안 | KOTRA 하노이 무역관<br>FTA해외활용지원센터<br>이여람 관세사 |
| 16:50 – 17:30  | 30' - 수책관리 실무 및 내국수출입제도  | 신한관세법인<br>베트남지사<br>김선웅 관세사              |
| 17:30 – 17:45  | 15' - 해외진출기업 지원보증 안내     | 신용보증기금 하노이사무소<br>배성호 소장                 |
| 17:45 – 18:00  | 15' 질의응답                 |                                         |
| 18:00 – 20:00  | 120' 만찬(선택사항)            | VTK공단 3층                                |

☒ [참가신청링크](#) (참석자 1인 신청서 1개 작성)

문의처: KOTRA 하노이 FTA 활용지원센터  
 <TEL : (+84) 024-3946-0511(620)>  
 이여람 관세사 (yeoram@kotra.or.kr)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KBIZ)  
 <TEL : (+84) 024-3796-0023>  
 이승혜 대리 (shlee.kbiz@gmail.com)

#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KOTRA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eyeonjang@kotra.or.kr <저작권자©KOTRA >